

“20사단 도청 투입 위해 헬기 띄우고 사격”

전남대 5·18연구소 김희송 교수 헬기사격 관련 군 기록 분석

공중수송·화력지원 맡아... 선전활동 신군부 주장 허구 드러나

5·18 민주항쟁 당시 광주 금남로 상공을 비행한 계엄군 헬기가 20사단의 전남도청 투입작전에서 공중수송 및 공중화력 지원 등 전투임무를 동시에 맡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는 1일 공개한 '5·18 기간 헬기사격 관련 군 기록 종합분석 초안'에서 “계엄군 헬기는 20사단 병력을 전남도청에 투입하는 임무를 갖고 비행했으며, 이때 공중사격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시민들과 격한 대립을 펼치던 공수부대를 전남도청에서 철수시키는 대신 20사단 병력을 주둔시키려고 헬기를 통해 수

송하는 작전에 나섰다 시민들 반발이 커지자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 주장의 근거는 1980년 5월 21일자 특전사령부 전투상보·20사단 중정작전 상보·20사단 상황개요 보고 육군본부 자료·육군1항공여단 작전일지·22일차 광주지역 작전 요약, 27일자 위력사위 계획 등 군이 작성한 기록물이다.

5월 21일은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특전사의 집단발포가 있었던 날이자 고(故) 조비오 신부 등 많은 시민이 헬기사격을 봤다고 지목한 날이다. 실제 광주일보가 5·18 특별수사팀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

과, 당시 투입됐던 61항공단장은 “최초임무는 5월 21일 20사단 병력과 특전사 병력(도청)을 공중수송 교대가 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계엄군은 도청에 있던 공수부대와 20사단 병력 교대를 위해 무장 헬기를 띄웠다가 사격을 했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전사 전투상보에는 ‘21일 오후 3시 20사단 병력 헬기로 도청 투입 실패’라는 기록이 있다. 그는 군 기록을 검토한 결과, 21일 20사단의 광주시내(금남로) 진입이 무산된 이후 오전 10시부터 가장 바빠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헬기 투입이 가장 늦었던 부대는 항공여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때 2군의 구두지시로 소형공격헬기 500MD 2대가 출동했고, 무장 가능한

UH-1H 헬기 10대가 오후 1시 10분께 광주 상무대에 도착한 뒤 바로 다음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민들이 목격한 21일 오후 1~3시 헬기사격은 항공기 임무 중 하나로 언급된 ‘명령에 따른 공중화력 지원’으로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전일빌딩 탄탄흔적, 시민들 목격담, 당시 군 기록을 종합 검토하면, 계엄군이 운용한 헬기는 그들 주장대로 선전활동, 전단살포가 아닌 화력지원 등 전투 목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20사단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5·18 당시부터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미국의 동의 내지 묵인이 있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방 부대다.

김희송기자 khk@kwangju.co.kr

의약계 리베이트 수사 전방위 확대

8개 병원 의사 줄소환... 뇌물 혐의 세무공무원 구속도

‘의약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 광주지역 의료계는 물론 공무원·언론인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리베이트 수첩’에 거명된 병원의 의사들이 줄소환되고,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처음으로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광주 8개 병원으로부터 세무신고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뇌물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남지역 모 세무서 간부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전남 A씨를 체포하고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광주 8개 병원으로부터 세무신고 적정 여부 검토(뇌물수수)로 이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오면서 전남 8개 병원에서 4000여명 환자를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 구매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있는 광주·전남지역 8개 병원의 의사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제약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리베이트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8개 병원 의사들을 비롯해 공무원, 경찰관, 언론인 등이 거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첩에는 이들과 만난 일자, 장소 등이 꼼꼼하게 기록됐고 일부는 식비나 유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장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장부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른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대부분 진본으로 식사한 것들로 보이지만 일부는 돈이나 향유를 받은 정황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라진 계엄군 헬기... 국정교과서 최종본서 사진 삭제

시민궐기대회 사진으로 교체

왜곡대책위, 즉각 폐기 촉구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드러난 5·18 민주화운동은 그 의미가 축소되고 왜곡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전일빌딩 헬기 총격 사실이 정지권 등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검토본에는 게재됐던 전일빌딩 헬기 사진을 최종본에서는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 5월 단체 등이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비판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군이 헬기에서도 무고한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사실이 최근 국정교과서의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고교 검토본에는 게재했던 헬기 사진을 최종본에서는 삭제해 헬기사격을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검토본에는 금남로 상공을 비행하는 군 헬기가 담긴 사진이 ‘전두환 정부의 출범’을 설명하는 부분에 삽입됐다. 해당 사진은 전남 공개된 최종본에서는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사진으로 교체됐다. 대책위는 이는 교육부가 군이 인정하지 않은 헬기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사격과 살상을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발표한 최종본 교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당시 전남도청 앞 상공을 비행하는 군 헬기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당시 전남도청 앞 상공을 비행하는 군 헬기

전두환 정부의 출범
5·18 민주화 운동을 전일빌딩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계엄군 헬기 사진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상공을 비행하는 군 헬기 사진이 삭제되고,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사진으로 교체됐다.

14 1980년 5월 21일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상공을 비행하는 군 헬기 사진이 삭제되고,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사진으로 교체됐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당시 전남도청 앞 상공을 비행하는 군 헬기

14 1980년 5월 21일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상공을 비행하는 군 헬기 사진이 삭제되고,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사진으로 교체됐다.

14 1980년 5월 21일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상공을 비행하는 군 헬기 사진이 삭제되고,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사진으로 교체됐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당시 전남도청 앞 상공을 비행하는 군 헬기

과서는 5·18 수습위원회와 계엄군 사이 협상이 결렬돼 군이 불가피하게 전남도청을 장악하고 5·18이 전남대생의 시위를 과잉진압하다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두환, 노태우 등이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법부 심판을 받은 사실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평가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

등 5·18 역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 현장을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라며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뇌물수수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사전영장

검찰이 이용부 보성군수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사택 신축 용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건축비를 시가보다 낮게 산정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7월 사택 신축 용지를 저가에 사들여 건축업자에게 사택을 건축하도록 한 뒤 공사비 중 일부만 지

급해 차액을 챙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업체의 부탁을 받고 2014년과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빙축제, 2015년 다향제 등의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에 대한 구속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열릴 예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성추행 고교교사 직위해제

광주 모 고교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체육 교사 A(43)씨는 최근 운동부에서 활동하던 B양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26일 직위 해제됐다. A씨는 훈련이 끝나고 난 뒤 B

양을 차 안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지난달 전지훈련을 마치고 난 뒤 동료 학생과 코치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냈으며 학교 측은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해바라기센터로부터 구체적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현금봉투서 돈만 들고 된 10대, 봉투에 남은 지문으로 ‘덜미’



○10대 청소년이 자신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사무실에

○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17)군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에 광주 시 북부 삼각동의 한 교회에 들어가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긴 후 책상에 위에 있던 현금 봉투에서 현금 60만원만 꺼내

갔다.

○“현금 봉투만 남고 현금만 사라졌다”는 교회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회 안 CCTV와 현금 봉투에 남아 있는 지문을 통해 A군을 붙잡았는데,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최근까지도 일요일이면 예배를 봤던 교회라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른 절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지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혀를 끌끌.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신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학부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식타악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사로 36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형일 :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 오후 2시30분
		목회학과(D.Min.)	○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전 10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2017. 2. 8(수) 오후 3시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형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